

2014. 12. 9. [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거시금융팀 임상준 팀장 (02-731-2440), 이호영 사무관 (2441)

##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 경기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선방안 논의

- (경제적 지대추구행위 축소) 대기업의 인위적 독점구조,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등의 경제적 지대를 타파(진입장벽 제거, 각종 행정규제 철폐)함으로써 창의와 혁신을 유도
- (미래먹거리 마련) 대·중소기업의 투자 노력 및 이에 대한 정부·정치권·노동계·소비자의 전폭적 지원, ICT와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 (금융혁신) 금융관련 규제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혁신을 유도
- (통화정책) 저인플레이조가 확산되어 있는 시기에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상승률에서 명목 GDP성장률로 전환 필요
- (고용 제도) 고용안정센터를 지역 고용네트워크 허브로 육성, 여성의 고용 및 처우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

2014년 12월 9일(화)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1년이 지나가고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일본의 20년 경기 침체의 교훈을 분석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학계·민관 연구기관·정부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activity)를 타파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현 부의장은 대기업의 독점구조 형성, 제도적 진입장벽에 기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성, 일부 노조의 세습 고용,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을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언급하며, 경제적 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총수요 부양정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함을 피력하였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에서 금번 세미나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려내고 재도약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며, ‘2015년 경제운영방향’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한국경제의 현안과 진단 세션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한국경제의 현안”,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국경제의 진단: 일본 20년 경기침체의 교훈”에 대해 주

제발표를 하였고,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진행으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온기운 숭실대 교수, 홍성국 대우증권 센터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세계경기 둔화, 저출산·고령화, 고용 악화, 금융불안의 만성화 등이 언급되었다.

경제활성화 및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세션에서는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오정근 건국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책방안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사회적 보호 장치 강화, 연금체제 구축,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업 혁신, 공공부문 개혁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의 진행으로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김도훈 원장은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의 먹거리 마련”이라고 진단하고, 대·중소기업의 투자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정치권·노동계·소비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김인철 교수는 통화·금융·외환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시 물가상승률 타게팅에서 명목 GDP 성장률 타게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

였다. 윤창현 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금융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동근 부회장은 IT 및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 노동법제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하태형 원장은 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고용네트워크의 허브로 육성하여 비정규직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고용 및 처우와 관련된 차별 금지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늘 세미나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2015년 경제운용방향' 마련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조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부>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요**

**<별첨> 기조발표 및 토론문 자료**

< 첨부 >

##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개선방안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 주최 : 한국경제학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한상공회의소

□ 상세 일정

시 간	일 정
개회식 13:30~13:50	인사말 :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환영사 :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 축사 :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13:50~15:00	세션1. 한국경제의 현안과 진단 사 회 - 현정택(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발표1 : 한국경제의 현안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한국경제의 진단 : 일본 20년 경기침체의 교훈 - 이지평(LG 경제연구원) 토 론 - 조동철(국민경제자문회의,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온기운(숭실대), 홍성국(대우증권)
15:00~15:10	휴 식
15:10~16:20	세션 2. 경제활성화 및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사 회 - 김인철(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 발표1 :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김정식(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발표2 :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토론 - 이상빈(국민경제자문회의, 한양대).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16:20~18:00	종합토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방안 사 회 - 정갑영(국민경제자문회의, 연세대 총장) 토 론 - 김도훈(산업연구원장), 김인철(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김정식(한국경제학회 회장),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윤창현(한국금융연구원장),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재(한국노동연구원장), 하태형(현대경제연구원장)
18:00	폐 회